

# 임야에 심은 나무 수 축소 의혹

### 공동주택 사업승인 받기 위해... 조사기관 따라 19.03% 차이 보여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부지 임야에 식재된 나무 수를 일부러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자가 W산림조합과 결탁해 사업부지 임야의 임목본수도 조사결과를 개발제한 기준 이하로 축소·조작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일 S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8-4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62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부지 가운데 임야에 대한 임목본수도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임야의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부지 가운데 조사 대상지는 전주시 평화동2가 458-3, 4, 5, 20번지 등 임야 4필지이며 사업자가 W산림조합을 통해 올해 4월 9일 조사한 임목본수도는 36.11%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는 올해 10월 20일 A산림사업법인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축소·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A산림사업법인의 조사에서는 W산림조합과 조사 대상지가 동일한 데도 55.14%가 나와 무려 19.03%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임목본수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임목본수도를 결정하는 임목본수와 직경총계 조사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식재된 나무의 수를 의미하는 임목본수의 경우 A산림사업법인은 1512본에 달했으나 W산림조합 조사결과

를 보이고 있어 축소·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A산림사업법인의 조사에서는 W산림조합과 조사 대상지가 동일한 데도 55.14%가 나와 무려 19.03%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임목본수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임목본수도를 결정하는 임목본수와 직경총계 조사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식재된 나무의 수를 의미하는 임목본수의 경우 A산림사업법인은 1512본에 달했으나 W산림조합 조사결과

633본으로 A법인 조사결과와 41.99%에 불과했다.

직경총계도 W산림조합은 1만3058cm로 A산림사업법인의 조사결과와 2만 2668cm의 57.6%에 머물렀다.

W산림조합 관계자는 "임목본수도 조사는 정확하게 이뤄졌다"며 축소·조작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에 대해 A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 "규정대로 조사대상지의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했으며 조사 대상의 수목에 빨간 띠로 묶어 육안으로도 숫자 파악이 가능하다"며 "산림조합과 전주시가 참여할 경우 재조사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22일 스쿨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찰일지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 전북농협, 스쿨팜 관찰일지 우수학생 시상

### 전주·익산·군산지역 36개 초등학교 대상

전북농협은 22일 스쿨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찰일지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스쿨팜사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익산·군산지역 36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업과 생명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전복도와 교육청, 전북농협이 실시하고 있다.

이날 표창은 스쿨팜사업에 참여한 3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체험 학습 우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우수한 관찰일지를 작성한 학생 29명을 선발했다.

특히 22일에는 스쿨팜 관찰일지 작성 최우수 학생인 김나연(전주효자초.5년)을 깜짝 방문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많은 학생들이 환호와 김나연 학생에게 많은 축하를 해줬고 간단한 식사랑 농사랑 퀴즈진행 등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작성 관찰일지에는 지난 8개월간의 고추, 상추, 무, 배추 등을 직접 길러봄으로써 느꼈던 대한민국의 농부의 고마움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22일 스쿨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찰일지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스쿨팜사업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익산·군산지역 36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업과 생명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전복도와 교육청, 전북농협이 실시하고 있다.

이날 표창은 스쿨팜사업에 참여한 3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별 체험 학습 우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우수한 관찰일지를 작성한 학생 29명을 선발했다.

특히 22일에는 스쿨팜 관찰일지 작성 최우수 학생인 김나연(전주효자초.5년)을 깜짝 방문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많은 학생들이 환호와 김나연 학생에게 많은 축하를 해줬고 간단한 식사랑 농사랑 퀴즈진행 등을 통해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작성 관찰일지에는 지난 8개월간의 고추, 상추, 무, 배추 등을 직접 길러봄으로써 느꼈던 대한민국의 농부의 고마움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이 담겨 있었다.

/안재용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22일 '제7기 여성CEO MBA 교육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 여경협 전북, '여성 CEO MBA 경영전략 과정' 수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22일 '제7기 여성CEO MBA 교육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날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 수료식에서는 전복중기청 정원탁 청장의 3%의 눈에 빠진 전북의 탈출구 라는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박영자 회장은 "MBA교육을 수강하면서 경영의 달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앞으로 도내 여성기업인들이 여성CEO MBA 과정을 꼭 수강해서 경영의 자극제가 됐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회의 2017년 전문경영교육과정은 상반기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CEO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안재용 기자

## 나정업 북전주세무서장 취임

나정업 제13대 북전주세무서장이 22일 취임했다.

나 서장은 "납세자가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集思廣益(집사광익)의 마음가짐으로 서로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나정업 세무서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상고, 중앙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및 조사3국,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 나주세무서 세입관리과장, 국제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북전주세무서장에 취임했다.

/안재용 기자

## 소상공인희망센터, 성금 기탁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업체들은 22일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성금 100여만원을 호성보육원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희망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자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센터 자치회 심성만 회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미 있게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센터는 도내 창업 2년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초기 탄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동반자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다.

/안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맞손'

### 농관원-석유관리원, 유통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1일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그 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 합동단속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와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악질 석유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세수의 탈루를 막고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정착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난방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개선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호응'

전북은행은 지난 21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8회 JB카드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실시했다.

이날 펼쳐진 예술기획 전문 사회적기업 My stage의 퓨전클래식콘서트는 전 연령층의 관객 누구나 편안하고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편곡한 영화음악, 뉴에이

지, 클래식, 자작곡 등 다양한 볼거리를 70여분 동안 제공했다. 특히, 일반 관람객 이외에도 평소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에게도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고, 연말연시 분위기에 맞는 공연 컨셉과 선곡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 제공

"그동안 전북은행은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실시해온 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속적인 지역공헌사업들을 통해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